

“사회문제 다룬 작품…‘공감 사회’ 만들고파”

‘광주영화제작지원’ 독립 단편 선정 동강대 미디어콘텐츠과 이한규씨

“사회문제를 다룬 작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미디어 영향력을 통해 우리 사회 단면의 아픔을 공감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동강대학교 미디어콘텐츠과 2학년 이한규(6·사진)씨는 지난 4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25 광주영상영화진흥지원 광주영화제작지원사업’의 독립 단편 부문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광주 영화산업 활성화와 지역 문화 자원 대중화 기여를 위해 광주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독립영화 제작을 지원한다. 이씨는 영화 제작에 2천만원을 지원받는다.

이씨의 작품명은 ‘로프(rope)’다. 너무 쉽게 무너져가는 우리 사회의 나약함을 꼬집는 내용이다.

그는 “‘로프’는 개인이나 조직 내 생존의 줄을 의미한다. ‘로프’를 너무 쉽게 잘라내는, 특히 조직 내에서 해고나 갑질 등으로 붕괴하는 사회 문제에 대해 우리 모두가 책임을 공감해주는 스트리밍”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에 관심…작년 ‘만학도’에 도전

‘로프’ 상반기 크랭크 인…“영화제 출품”

이씨는 1958년생으로 올해 만 66세다. 미디어 분야에 관심이 높아 지난해 동강대 미디어콘텐츠과 2학번으로 만학도가 됐다.

그는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관련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다큐멘터리 작품에도 도전했다.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어 대학에 진학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올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업 이전에도 수많은 공모전에 참여해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한다.

2020년 ‘제15회 정읍 전국실버영화제’에서 ‘마지막 만남’이라는 작품으로 심사위원특별상을 받았다. 정읍 전국실버영화제는 국내 최초 노인 영화제다.

또 2021년 시청자미디어재단 전국 공모전에



획이다.

그는 “‘로프’ 준비 당시 학과에서 많은 도움을 줬다. 활용 때 동강대 미디어콘텐츠과 학생들과 함께 경험하면서 개인 실력뿐 아니라 학과 위상도 높아지는 좋은 기회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작품이 마무리되면 여러 영화제에 출품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사회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시리즈로 영화를 만들어볼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강대 미디어콘텐츠과는 디지털 영상 콘텐츠 산업이 급성장하고 특히 ‘퍼스널 브랜딩(Personal Branding)’을 활용한 개인 미디어 분야가 각광받으면서 사회 트렌드에 발맞춘 경쟁력 있는 학과 운영에 나서고 있다.

소니 FX3 4K 시네마 카메라, 전용 I-Mac 그래픽 실습실, 광주·전남 지역 유일의 버추얼 스튜디오 등 최고의 콘텐츠 제작 인프라를 구축했다.

특히 광주에서 유일한 영학교육과정 학과로 ▲AI 콘텐츠 제작 ▲인크리에이터 ▲언리얼 엔진5를 포함한 모션그래픽 교육과정 등을 통해 관련 취·창업 분야에서도 명문학과로 발돋움하고 있다.

/김다이기자



하나님의 교회, 무등산국립공원 정화활동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이하 하나님 교회)는 지난 22일 광주 무등산국립공원 일원에서 정화활동을 펼쳤다.

하나님의 교회 봉사자들은 산책로 10km 구간에 버려진 일회용 컵, 빨대, 음식물 포장지, 비닐봉지, 나무젓가락 등 50ℓ 종량제봉투 20개(95kg) 분량의 각종 쓰레기와 곳곳에 걸린 불법광고물을 제거했다.

정화활동에 동참한 박모(26)씨는 “비쁜 직장

생활로 인해 환경에 대해 신경 쓰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지구 사막화를 막고 환경 정화에 이바지 할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다”며 뿌듯해했다.

하나님의 교회 관계자는 “지역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이들이 찾는 국립공원이 푸른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다”며 “오늘 활동에 힘쓴 봉사자들과 이곳을 방문한 이웃들 모두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성학기자

목포경찰, 상반기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정기회의

목포경찰서는 “최근 경찰서 회의실에서 2025년도 상반기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2024-2025년도 주요 집회·시위 현황 보고 및 집회시위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집회·시위자문위원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법정 자문위원회로 교수, 변호사, 지역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돼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 또는 제한 통고에 관한 사항과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등의 기능을 담당하며 견진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힘을 보태고 있다.

문병조 목포경찰서장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 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공공 질서를 해하는 불·탈법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선진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말했다.

서체수 집회·시위자문위원회는 “경찰의 집회시위 관련 업무에 대한 꼼꼼한 검토와 충실향 자문 역할을 통해 견진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과 안전하고 평온한 목포 치안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목포=정해선기자

장흥경찰, 초기 화재 대응 역량 강화 소방훈련

장흥경찰서는 “최근 경찰서 1층에서 초기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한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소방훈련은 실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인명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특히 가상 화재 상황을 대비해 ▲신속한 화재 상황 전파·신고 ▲인명 대피 ▲소화기·소화전 사용 ▲중요 문서 반출 ▲환자 응급조치 등 초기 화재 진압 순으로 대처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직원들의 소방 안전의식을 강화했다.

박흥원 장흥경찰서장은 “응급 상황에 대한



직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안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흥=노형록기자

이춘구 코레일 광주본부장 취임

이춘구(55·사진) 제14대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광주 본부장이 23일 취임했다.

이 본부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여름철 대비 안전점검을 위해 광주송정역을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 본부장은 “안전한 철도 구축은 코레일의 존재 이유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신뢰자산”이라며 “현장 중심의 안전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고객이 편안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사가 협력해 고객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코레일 광주본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992년 철도청에 입사한 이 본부장은 물류사업부문, 인사노무실, 기획예산처, 전략기획처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담당한 업무 능력과 추진력을 인정받았으며 감사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정은정기자

조선대 최민기씨 ‘대통령과학장학생’ 선정

조선대학교는 23일 “전기 공학과 최민기 학생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 장학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 대통령과학장학금’ 사업의 신규 장학생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통령과학장학금은 과학기술 분야의 창의 성과 잠재력을 지닌 최우수 인재를 발굴해 세계적 수준의 핵심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 국가 인재 양성 사업으로,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등이 지원된다.

올해 국내 대학 1·3학년 각 60명, 지역 추천 17명, 해외 대학 20명 등 총 157명이 선정됐다.

국내 대학 3학년 부문에 이름을 올린 최민기 학생은 지난해 5월부터 조선대 전기공학과 김남훈 교수의 전기물성실험실에서 인턴 연구생으로 활동하며 ▲차세대 전력용 반도체 산화갈륨 기판의 화학적·기계적연마공정 개발 ▲뉴로모픽 인공지능 반도체 시냅틱 특성 연구 등의 연구를 수행해 왔다.

최민기 학생은 “첨단 장비 지원과 학문적 통찰력을 제시해 준 학교와 교수님에게 깊이 감사하다”며 “반도체 분야 학업과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철원 담양군수 ‘인구문제 캠페인’ 동참

담양군은 “정철원 군수가 최근 군수실에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인구문제 인식 개선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으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대응을 목표로 전국 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철원 군수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는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캠페인이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담양군에서도 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결혼

▲박종덕·백미정씨 아들 준용군, 박준수(전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임형순씨 장녀 지은양=7월6일(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55 더컨벤션 송파문정점 13층 아모르홀. 02-6418-5000, 010-6232-3078.

부음

▲정철원씨 별세, 정영록(광주매일신문 부국장) 씨 부친상=발인 24일(화) 오전 8시 강진장례식장 1분향소(061-432-4004).